

“작곡은 떠오르는 영감을 체계화하는 작업”

컬쳐 & 피플

작곡가 김현옥



작곡가 김현옥씨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다. 작곡 대가들의 연주기법을 공부하기 위해 그녀는 매일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작은 힘든 작업이다. 하물며 예술창작이라면 더욱더 만만치 않다.

새하얀 악보에 콩나물 음표들을 빼곡하게 채워가며 클래식 음악을 만들어내는 작곡가 김현옥씨는 한 곡 한 곡 새로운 곡이 탄생할 때마다 희열을 느낀다. 그녀는 “창작을 한다는 건 너무나 재미있다. 일이 많아 실컷없이 바쁘면 그게 오히려 기쁘다”고 전한다.

50대의 나이라는게 믿겨지지 않을만큼 소년같은 이미지를 풍기는 그녀는 광주에 몇 되지 않은 여성 클래식 작곡가다.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그녀는 전국에서 교수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피아노 교재를 펴낸 삼호뮤직 저자이기도 하다.

작곡가들은 창작활동을 어떻게 하는 걸까. 김씨는 “영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한 지식이 깔려 있음은 전제로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만큼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러한 영감을 어떻게 표현하는 지를 알려주는 것이요. 음악을 듣는 방법, 듣고 악보에 적는 귀 훈련, 작곡할 수 있는 기량과 작곡하는 이론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녀가 알려주는 작곡의 노하우는 ‘논리적인 표현 방법’이다. 주제를 정해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 글을 쓰듯, 작곡도 ‘동기’를 받아 전개하는 기법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무작정 떠오르는데로 적는다면 질서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며 “대가들의 작품 또한 축적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는 나름의 질서가 있다”고 말했다.

대중들은 감성적으로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곡을 만드는 이들은 감성을 이성화 해서 작곡을 한다는 것이 김씨가 말하는 작곡가의 임무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광주 개막·폐막식 음악감독 맡아

현대음악과 국악 병행 ‘달빛 오디세이’ 8월 공연 작품 발표 준비 한창

그녀는 작곡 대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주 감상하고, 그들의 작곡기법을 공부하고, 흉내내서 써보기도 한다고 고백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는 피아노 연주도 스스로에게 내린 숙제다.

김씨는 최근 몸이 두 개 옆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8월 예정돼 있는 작곡발표회 ‘달빛 오디세이’ 준비만도 벅찬데, 지난 3월 동아시아 문화도시 광주 개막식이 이어 10월말 폐막식 음악 감독까지 맡게 됐다.

개막식에서 선보인 공연은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했다. 행사의 성격에 맞춰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을 대표하는 곡들과 베토벤의 ‘합창’을 합창곡으로 편곡하고 오케스트라로 편곡하는 고된 작업을 거쳤다. 이 곡들은 광주·전남 6개 합창단원이 모인 300명 규모의 대규모 합창단대의

해 불러졌다.

반응이 좋았던지 개막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월31일 개최 예정인 폐막식 음악감독까지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개막식에서 동아시아 3국 작품을 편곡해서 올려 많은 분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해볼 생각이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아시아를 권역별로 나눠서 대표곡을 포함적으로 편곡해 무대에 올릴 계획이에요. 동아시아를 넘어 아시아로 뻗어 나가는 내용으로 새로운 곡도 하나 만들 겁니다.”

벌써부터 머릿속으로는 아시아의 이야기를 담은 음표들이 떠나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다가온 작업은 8월에 열릴 ‘달빛 오디세이’다. 김씨의 이름을 널리 알린 ‘달빛 오디세이’는 음표를 지닌 한국의 고유한 예술들을 음악의 어둠으로 재해석해 현대와 소통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 독특한 무대다.

김씨는 “신작 발표의 난해함을 풀어보려 평소 기뻐했던 작은 작품발표회를 많은 분들과 나눠보려는 취지에서 ‘달빛 오디세이’가 탄생했다”며 “가사문학의 산실인 환벽당에서 ‘환벽당의 달빛 오디세이’를 시작했고 이후 꾸준히 발표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달빛 오디세이’는 8월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한국의 창조실현인 ‘바리데기’라는 무당들의 신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풀어 음악극으로 만든 무대다. 국악을 위주로 하지만 서양음악과도 조화를 이루고, 창작무용도 곁들여 보는 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모집

내달 2일까지 접수

광주비엔날레재단이 ‘터전을 불태우라’를 주제로 열리는 2014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기간 동안 활동할 도슨트 40명을 모집한다.

2014광주비엔날레 도슨트 참여를 원하면 도슨트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등 관련 서류를 6월2일까지 비엔날레재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슨트 경력자, 외국어 통역 가능자(별도 면접 실시), 국제 행사 진행 경력자, 관련학과 졸업 및 졸업예정자 등을 우대하며, 성별 및 연령 제한은 없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6월7일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최종합격자는 면접 심사와 기초 교육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도슨트들에게는 교육 수료증과 함께 행사 기간 중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또 행사 종료 후에는 도슨트 활동 증명서가 발급된다. 문의 062-608-4235, 424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담미술관 ‘나를 찾아가는 미술여행’ 행사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사진)은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28일 오후 7시 ‘나를 찾아가는 미술여행’ 행사를 개최한다.

강사로 나서는 정희남(광주교과대 미술교육학과 교수) 관장은 이날 관람객들과 함께 서책의 삽화, 사진 등을 붙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콜라주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이 느끼는 소외감,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정체성에 대한 혼란 등을



미술로 치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 관장은 “콜라주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자신과 어울리는 색을 찾고, 타인과는 다른 자신만의 상징과 특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1-381-008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일 지적장애인들이 음악 통해 우정 나눈다

백선바로집 친선 음악회 내달 1일 광주 성부교회

한국과 일본의 지적 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꿈을 키우고 서로 우정을 나누는 행사가 마련된다.

광주의 지적 장애인 재활시설과 백선바로집 원생들과 일본 장애인과 후원자들의 모인인 그룹 ‘은하’가 함께하는 일한 친선교류음악회가 오는 6월1일 낮 12시30분 광주 성부교회에서 열린다.

‘우리는 모두 친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는 클래식을 악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

13년 전 조직된 그룹 ‘은하’는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

애를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전하는 그룹이다.

‘은하’는 건반하모니카 연주로 ‘레미자르’, ‘에니의 동쪽’ 등을 들려주며 바리톤 솔로 ‘마이 웨이’ 등을 선사한다.

특히 ‘넬라 판타지아’, ‘아리랑’, ‘나의 환상속에서’, ‘이웃집 토토로’ 등의 음악에 맞춰 그림자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백선바로집의 집은 채동진 군의 드림과 안성주·김윤희씨의 노래가 어우러진 ‘나는 나비’, 정스런, 박영주, 김예심 등이 출연하는 ‘카타레나’ 공연을 선보인다.

다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한다. 문의 062-943-3300. /김미진기자 mekim@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전대상대2분

(미래로 아파트 용봉지구 코너)
신축 4층 룬21개
(1층 상가2칸, 4층 고급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월수익 880만(1년 1억500만)
매가 12억(보1억 3억)
수익을 12% 11억5천

② 전대정문, 후문1분(신축4층 룬12개) ★
1층 점포, 4층 고급주택, 월수익 450만 매가 6억7천(보3천, 용1억2천)

③ 나주 이창동 원룸 ★
룸 18개 월 550만 매가 4억3천(용1억2) 수익율 13%

★ 쌍촌역 오피스텔 매매 (원룸형, 투룸형 원천역2분) ★
원룸시설완비 올리모텔링 전자제품 신규교체
• 원룸형 (10평) 3천3백(보증금 200, 월27, 용1000)
• 원룸형 (11평) 매가 3천4백(보 200, 월 27, 용1000)
★ 2채매입시 ★ 총매가 6천5백(용2000만) 실투자 4500만 (월수익 54만 원) 수익율 15%

(주)대신 ☎ 010-6670-9800, 062)952-5584

신축원룸임대

전대상대5분

용봉지구 미래도 APT 옆 코너
군산이규필 앞, 르까프매장 뒷
신축, 풀옵션
(33년제, 인화역 유선 전차도, 세차, 생활, 놀이 모두)
주식인주자
원룸 보증금 200
월 32만원 (관리비 포함)
투룸 보증금 300
월 42만원 (관리비 포함)
6월10일까지 입주시 50만원 상당 사은품
컴퓨터 증정
062)952-5584/527-7600

수완지구 상가매매 3층

수완지구 3층(85평) 매가 13억5천
모아엘가 APT 입구 5000세대
최고위치 노후보장, 혁원, 사무실, 투자적합
(보3천 월190만 82억5천)
수익율 13% 연 2400만원 전용용 높음

첨단지구 상가매매 2층

첨단지구 2층(62평) 매가 1억7천
오션스파 임대기 보증금 2천 월90만
사무실 시설 완비(주인직접 사용)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계림동 4차선도로점 상입지 571㎡(173) 공시지가 7억 은행 5억 감정 9억 5천선 매도 6억 2천
- 월산동 2층주택 동성초등학교 부근 대지 196㎡(59) 건평 162㎡(49) 큰 아파트와 교환도 가능 1억 5천
- 광주은행보통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 공시지가 11억 6천 매도 11억
- 계림동 대지 542㎡(164) 건물 396㎡(1200) 18억 2천

투자, 매도, 교환

- 쌍촌역부근 고시원 대지 272㎡(87) 건물 493㎡(149) 보증금 3천에 월 600선수익 매도 5억 2천
- 차평중학교부근 대지 386㎡(117) 건평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 2천에 월 600선 수익 5억2천
- 담양군 대덕면 관리지역 8553㎡(2587) 공장, 창고등적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천
- 무인텔 적합 부지 나주시 송월동 상입지 1666㎡(504) 대출 13억천 매도 대출인수하고 3천만원
- 쌍촌동 5.18공원근처 대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기계와 인접 원룸 15개 5억 6천
- 농성동 소방도로점 대지 206㎡(62) 공시지가 매도 8500 보성동량면 산 68430㎡(20700) 교환가능 1억 3백
- 남구 사동 사직공원부근 10월 준공예정인 주택 85㎡ 은행 1억 5천선 생활여건중을 2억 3천
- 남구 서동 신축2층주택 대지 136㎡(41) 건평 132㎡ 임대 1억 4천 매도 4천 만원
- 나주시 산포면 별장부지 790㎡(234) 매도 1억천

임대

- 쌍촌동 운천역부근 원룸촌지역 1층 234㎡(71) 오락실 호프집 대형식당 등 적합 보증금 5천에 월 230만원예정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서관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명프랜차이즈 입점
- ▶ 북구 신용동 유지원 건물 매매 23억
- ▶ 광산구 신창동 4층건물 매매 27억(보4.1억, 월1,240만)
- ▶ 서구 풍양동 대로변 3층건물 매 10억(보5천, 월520만 포함)
- ▶ 서구 차평동 5층건물 매매 40억 (보4억, 월2,000만)
- ▶ 광산구 수완지구 상가건물 매매 110억

대지/전답

- ▶ 북구 용두동 1층주거지역 답 1,990㎡ 매매 6억 6천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760㎡ 매매 16억
- ▶ 남구 주월동 대지 2,290㎡ 매매 54억(병원최적)
- ▶ 북구 용두동 생산복지 답 5,000㎡ 매매 12억(창고적합)
- ▶ 북구 용전동 생산복지 답 7,900㎡ 매매 29억(4거리코너)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복지 답 2,000㎡ 매매 6억5천
-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지역 29,800㎡ 매매 39억
- ▶ 서구 마곡동 생산복지 답 5,400㎡ 매매 20억
-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800㎡ 매매 16억
- ▶ 세히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 벽진동 창고 730㎡ 임대 보 5천 월 450만

광주, 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에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낚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